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교회가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지난날 족적의 길이와 깊이의 분량이 얼마만큼 인지를 가늠하느라 한동안 시간을 거슬러 헤매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아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기도 하는 수많은 사연들을 떠올리며 20년 세월의 시공을 넘나들다 문득 얼마 전의 일이 생각났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 한 사람이 대동하고 온 건장한 청년과 젊은 숙녀를 필자에게 인사를 시켰고 그 젊은이들은 바로 20년 전에 얼마 품에 안겨 교회를 나왔던 아기남매였던 것이다. 이제는 몰라보도록 외적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그들의 모습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을 보았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았다. 창립 20주년의 세월이 주는 의미는 이렇듯 우리 교회가 성년을 맞았다는 햇수뿐만이 아닌 성년의 나이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아야 할 원년을 맞은 것이다.

1988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었던 26일에 교회 창립의 뜻을 함께한 교우들과 그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참석해준 하객들까지 포함한 50여명이 모여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로부터 20년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고 이제는 그때의 100배가 훨씬 넘을 만큼 창대해졌다. 오늘의 성년을 맞을 수 있기까지의 지나온 나날들에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마주했던 수차례의 위기에서도 그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길 열어 주셨던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애쓴 교우들의 숨은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성년으로 키워낸 밑거름이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교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논의 되었던 많은 사안들 중의 중심과제는 당연히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였다. 그 논의에서 김도목 장로로부터 교회재정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선교와 구제에 역점을 두는 제의가 있었고 초대담임 이재철 목사를 위시한 전원일치로 결의된 선례가 없었던 이 파격적인 제의는 주님의 교회 창립정신의 근간이 되었다. 창립예배에서 드러졌던 첫 헌금이 전라남도 묘도에 그 섬이 생긴 이래 첫 교회의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된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선교와 구제사업의 사례를 이 지면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 처소로 사용 중인 정신학원의 건축과 남양주에 위치한 동화학원에 길가에교회를 세워 독립 시킨

창립20주년의 회고

것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우리교회 창립정신의 결실이었다. 교회를 드나들때마다 마주하는 강당건물을 보면서 건축을 이루어내기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헌금을 모았던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럽고 이런 교인들로 양육해온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몸담은 일원인 것이 스스로 자랑스럽다. 항간에서는 주님의교회가 정신여자중고등학교에 강당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한 것을 단지 자체 예배당 건물을 가지지 않는 무소유정신만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와 구제의 창립정신 본질을 비켜간 시각으로서 우리는 앞으로도 제2 제3의 정신학원 건축과 제2 제3의 길가에교회를 개척해가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것이다.

교회 창립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 무렵의 사회분위기는 5000년의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는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두달 뒤에 열리게 될 88서울 올림픽을 앞둔 열기가 온 나라에 가득했고, 국민들은 24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 자부심으로 들떠있었다. 또한 각 언론매체들은 올림픽을 치른 후에 세계 속으로 도약해갈 우리나라의 위상을 그린 청사진을 다투어 제시하며 국가 중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 나라의 기독교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서서히 쇠퇴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 뒷날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고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온 것은 비밀도 아닌 교계의 비밀이다.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로 불리우는 교회들이 국가경제성장의 풍요 속에서 교회건물 크기가 성공의 척도인양 경쟁적으로 바벨탑 쌓아올리기에 몰두하면서 바알의 물신신앙처럼 변질되며 그들 내부에서부터 쪼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사회에 팽배한 반기독교 분위기에 편승한 모 공중과 방송이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그 교회 목회자들의 무소불위 권력행위와 가당찮은 세습 행태는 교계 전체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재앙의 진원지였다.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간곳없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다. 교회의 본말이 전도된 이런 행태가 이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100여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정작 심각한 사태는 위기감을 가지지 못하는 교계의 무감각이 안타깝다.

되돌아보면 기독교계의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교회가 창립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땅위에 수많은 교회를 두고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

도록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제 성년이 된 우리교회는 주님의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할 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창립예배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는 결코 외관이 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크게 펼치는 그런 교회이기를 서원했기에 오늘날 당면한 교계의 위기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함은 주님과 맺은 우리의 약속이었다. 따라서 지난 20년이 창립정신의 구현을 위해 매진해온 여정이었기에 성년을 맞은 이 시점부터는 성년이 된 교회로서의 새로운 미션이 준비되어야 할 때를 맞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지금 교계 일각에서 주님의교회가 이 시대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로 거론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여 행여라도 현상에 안주한 채 자기 틀 속에 갇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성찰에 게을리 함이 없어야겠다.

우리 교회의 이런 중대한 전환기에 때맞춘 4대 담임 박원호 목사의 부임은 이 계단을 맡기고자 예비된 주님의 선택이었음이 날이 가면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12 steps 성경공부는 성경을 통털어 섭렵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알아가는 4년여에 걸친 대장정의 도전으로써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반석위에 반듯하게 세우는 제2의 창립이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이 대장정에 2000명이 넘는 교우들의 대거 참여가 일찍이 우리 교회에서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사건의 시작은 이 대장정이 끝나고 말씀으로 재무장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될 것이다. 간절한 바람은 그에게 위임된 10년 임기가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중흥기의 도래가 되고 본인에게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일생의 목회에서 가장 빛나는 사역이 되기를 기원한다. 덧붙여서 담임목사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당회의 시무 장로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20년 전에 주님과 약속했던 창립의 정신을 무겁게 인식하여 성년이 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가는 일에 모든 역량의 결집을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안수하여 받은 직분이 결코 자신의 명예도 우월적 지위도 아닌 자기 희생임을 하나님과 전 교인들 앞에서 서약했던 임직예배를 항상 기억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청지기의 자세로 교회와 교우들을 섬김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받는 우리 당회가 되어주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 모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명실 공히 주님의 교회로 불리 우는데 부끄럼 없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는데 앞장 서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격변하는 시대에 태어난 우리 교회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20년의 회고를 끝내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우려되는 갈등요인으로 빈부격차를 들고 있고, 이것은 날이 갈수록 간격의 골이 깊어지면서 절대빈곤층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계층간의 충돌까지 예고하고 있다. 굳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에 나타나는 각종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악해지면서 범행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고 그 범죄 심리의 저면에는 예외 없이 빈곤에 기인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력 불균형이 낳은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이 난제를 해결할 어떤 이상적인 제도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거 하듯이 그런 유토피아는 전설속의 이상향일 뿐이다. 그럼에도 모든 생명은 주님께서 주셨기에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는 것이고 빈부의 구분없이 주어진 단 한번뿐인 그 생애가 영영 가난의 굴레에서 놓여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공동의 사안인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회공동체에서 소외된 약자들의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지의 대답은 자명한 것이다. 갈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이야기해야하고 그들을 보듬어 그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이 시대 이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거듭 강조하는 뜻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의 성년을 맞이까지 이끌고 돌보신 주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스무번째 생일을 온 교우들과 함께 자축하고자 한다.

황기언 사임장로

※편집자주

본 보는 지난 호에서 〈주님의교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중 지면관계로 황기언 사임장로의 글이 다 실리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번호에서 전문을 다시 실었다.

|오늘의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통 권 _ 제 233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7월 27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사진) 전교인수련회중 성극 <건너가게 하소서>의 한 장면과 성막을 짓는 모습



2008 전교인 수련회 은혜롭게 마쳐

주님의교회 창립20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수련회가 '성령, 함께함, 하나님 나라' (행2:44-47)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경기도 광주 오폐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있었다. 전교인이 함께 하는 수련회답게 1,200명 이상되는 성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회가 하나되고 이전의 어떤 수련회에서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성극과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다. 성극과 성막 행사 모두 야외 공연장과 운동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날씨를 조금 우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서 너무나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셨다. 첫날 저녁 야외 공연장에서 성극 '건너가게 하소서'를 올려졌다. 이 성극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지도자 모세의 파란만장 삶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보여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거의 한달 이상동안 연습을 연습을 거듭한 결과 선보인 공연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후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가 잇달았다. 둘째날의 핵심은 성막이었다.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을 온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실제 크기의 2분 1로 지어진 성막은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그대로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수련회가 기존의 다른 수련회와는 구별되는 주님의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수련회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강찬 목사

주님의교회 엠블렘(CI)공모

우리교회는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가치참조)에 맞는 창조적이고 신선한 심벌마크와 로고 디자인을 통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님의교회 엠블렘을 공모한다. 작품응모기간은 2008년 8월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접수하며 2008년 11월 16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및 상패를 전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www.pcltv.org)를 통해 참조하면 된다. 재능있는 성도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편집부

여름
휴간공고

함즐함울은 4주간 휴간하고
8월 31일에 234호가 발행됩니다

감사의 편지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23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북한 결핵어린이를 살리기위한 생명 나눔의 밤 행사에 주님의교회와 교우들이 함께 협력한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편지를 전해온 글이다.

6월 23일 북한 결핵 어린이를 살리기 위한 생명 나눔의 밤에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심에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분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는 지난 2008년 7월 2일 인천항에서 북한결핵어린이를 살리기 위한 결핵약 2차분을 단돈항을 거쳐 평양으로 보내는 출항식을 가졌습니다. 3억 9천만원(결핵약 3억원, 영양제 등 9천만원) 상당의 결핵약과 영양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3만원이면 한 생명을 살리는데, 금번에 결핵약 지원으로 1만명의 북한 결핵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원해주신 성원에 보답하도록 본 본부는 더욱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번영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 이윤구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전교인수련회

3면

거룩한 분노 (온유한 자)

마태복음 5:5

온유함이란 결코 성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악한 일에 대해 분노하고 사탄의 역사에 분노합니다. 거짓에 대해 분노합니다. 폭력에 대해 분노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고,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 두 번째가 애통함 그리고 오늘 온유의 순서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 온유라는 덕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이 온유에 대해 말한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온유한 사람은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중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분노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분노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온유함과 분노함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둘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유함이란 결코 성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악한 일에 대해 분노하고 사탄의 역사에 분노합니다. 거짓에 대해 분노합니다. 폭력에 대해 분노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고,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의 의미

온유함이란 결코 약함이라거나 수동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모습,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뜻은 결코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을 미워한다는 뜻이고 대신 나 자신은 한 없이 사랑함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내 속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내게 해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온유하는 말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악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스려진 분노입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는 결코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성령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이 때 우리는 온유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인간의 기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덕목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분노하시되 이웃을 향하여 악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온유함입니다. 탄식과 분노, 이 두 가지가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다고 죄인을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한 판결을 내리지만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긍휼함을 갖습니다. 온유한 자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죄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산상수훈은 대부분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

우리가 삶에 진정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온유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nheri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는 말씀도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한 땅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들을 부르신 거룩한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지만 상속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땅이란 것은 결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속이란 것은 재산의 물질이나 재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일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속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줄 아는 능력

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할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든지 우리가 가진 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 한 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으나 적으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가 다 땅의 일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산상 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바람에 감사함도, 가진 것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삶이란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삶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 진정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온유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8 전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친 수련회, 이것이 천국의 맛이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큰 교회에서 구역도 아니고 전 교인이 같이 모여 수련회를 갖는다?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호기심 반 의심반의 마음으로 청소년인 두 아들, 딸을 집에 다 남겨 두고, 오후에 휴가를 내고...궁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뒤로 한 채 가정사역팀에서 맡은 '환영찬양'을 하러 1시간 일찍 광림수도원에 도착했다.

벌써부터 커플티를 입은 부부들이 땀별 아래에서 찬양을 맞추고 있었다. 먼저 도착하여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을 환영하며 찬양과 율동을 하니 어색해 하시며 황송(?)해 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시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빠르게 지나가셨지만, 같이 찬양을 하며 손뼉치고 춤을 덩실덩실 추시며 오시는 나이 드신 집사님들을 보니 마치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광경인 듯 싶었다. 찬양이 너무 좋아 그 길을 다시 오가신 장로님들도 계셨다. 주님의교회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하다니...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새로운 일들을 계속 행하실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1천 여명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질서정연하면서도 은혜롭게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밤을 새워가며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신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건너가게 하소서' (성극)와 성막체험 모두, 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후회스러울 정도로, 일생일대의 귀한 경험이 되었고, 이 용규 선교사의 짧으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불어야 할 회개와 성령의 바람, 나의 익숙한 것을 계속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참으로 신기하다. 수련회에 참석한 시간은 짧은 하루의 시간 정도밖에 아니었는데도, 그 것은 마치 조그만 누룩이 빵을 부풀리 것처럼, 일상에서의 수일과 비교하여 수십 배, 수백 배의 풍성함, 은혜 공황이 있으니 말이다...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이리라...

권 주리 집사 (3-9)

주님의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2008년 7월 11일에서 7월 12일 까지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있었다. 1200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극(건너가게하소서) 관람, 성막체험, 공동체 어울림, 이용규 선교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교우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전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사진설명. ①가정사역팀의 환영찬양과 율동 ② 1200여명의 수박등 간식을 담당한 잔잔한 손길들 ③ 성극 건너가게 하소서 중 모세의 고백 장면 ④처음으로 무대에 서니 떨리네요! 연기는 초보지만 분장은 멋있게 해주세요! ⑤ 수련회중 어린이와 개그맨 정종철의 만남 학교가 여기있으면 너무 좋겠지?



사진설명. ⑥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 이곳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외형보다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⑦ 왜 성막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시대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 기다리며 설레이며 마음 조이는 성도들

